



학교도서관 서비스의 총아, 도서관활용수업의 일상화를 위하여

— 장서에 관한 제언 —

글 | 강봉숙
경운중학교 사서교사
fineday4u@naver.com

첫걸음, 교육과정 분석

경운중학교 도서관의 대출 카운터는 늘 어수선하다. 모든 교과, 전 학년의 교과서가 사서교사인 필자의 손이 닿는 곳에 있고 차를 마실 수 있는 비품이 마련되어 있다. 차를 마시러 와서는 지저분한 책상을 농담 반 진담 반 용감하게 나무라 주시는 선생님들도 있다. 그럴 때면 지저분한 대출 카운터를 뒤로 하고 “나, 교육과정 분석하는 사서교사예요.” 웃으며 으스스댄다. 이쯤 되면 필자는 새로운 교육방법을 시도하기 두려워하지 않을 법한 동료 교사에게 “선생님도 도서관활용수업 좀 해보시죠?” 이야기를 꺼내 본다.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에서는 ‘사서교사의 교과 연계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분석의 이해’라는 주제로 2013학년도 여름 사서교사 직무연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연수 주제를 처음 들었을 때 필자는 감탄해 마지 않으며 잘 기획된 연수라 생각했다.

교육과정을 분석하는 것은 시도만으로도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사서교사가 도서관활용수업을 통해 학교도서관의 역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노력이다. 배움이라는 학교의 궁극적 존재 이유를 학교도서관이 함께 하는 데에는 교육과정에 밀착된 장서를 구성하는 것이 비옥한 토양과 같은 탄탄한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게 구축한 학교도서관 장서를 일반적 방법의 정보서비스를 통해 학생과 교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제공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첨단 비밀병기를 지닌 최정예 부대가 딱총이나 이쑤시개로 한 명, 한 명을 공격하며 전투를 펼치는 것과 같은 형세라 생각한다.

도서관활용수업, 첨단 비밀병기

도서관활용수업이라는 학교도서관만이 할 수 있는 특화된 정보서비스를

통해 교육과정에 밀접하게 구성된 장서를 수업에 투입시키면 장서 이용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 심지어 다음 시간 학급의 수업을 위해서 이전 시간 학급 학생들은 이용했던 자료를 열람만 하고 대출하지 말 것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키고 당부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다.

도서관활용수업을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서교사는 도서관활용수업 시 수업과 관련한 장서를 소개해주는 수준에서 교과교사를 도와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 이는 정보활용과정 모형에 있어 첫 단계인 정보의 탐색 및 접근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후 상황이 허락되면 학생들이 정보를 분석, 종합하여 새로운 지식의 형태로 표현하게 하고 스스로의 정보활용과정을 평가해 보게 하는 도서관활용수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사서교사가 교과교사와 함께 협력하여 팀티칭(team teaching)을 하면 도서관활용수업의 수준은 도서관협력수업으로 한 단계 더 높아진다.

이러한 도서관협력수업을 거듭하면 교사와 학생들이 학교도서관을 매개로 자연스러운 배움의 공동체를 만들고, 학교도서관은 활기를 띠게 된다. 그 시점에 사서교사는 몇 가지 고민에 빠지게 된다. 사서교사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어찌해보겠지만 몇몇은 학교도서관이 가진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사서교사 개인의 노력으로는 해답을 찾기 힘든 상황에 놓인다. 그 중 가장 큰 고민은 장서에 관한 것이다.

복본도서 윤독만은 참아주세요.

전국에 배치된 사서교사가 100명도 안되던 십여년 전에도 도서관활용수업은 존재했다. 그 때는 주로 국어교사가 학생들을 도서관에 데리고 와서 한 국문학 단편소설집 등에 실린 단편을 다 함께 윤독

하고 독후활동을 하는 수준의 책 읽기 수업을 도서관활용수업의 전부라 여긴 듯하다. 아직도 도서관활용수업을 이러한 틀 안에서만 생각하는 교사들이 있다. 똑같은 책 40권을 갖추고 한 반 전체 아이들이 함께 읽으며 도서관활용수업을 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교사들도 있다. 물론 학교 도서관이 어떤 식으로도 이용되지 않는 것보다 낫지만 이러한 일률적인 형태의 도서관활용수업은 가능한 지양해야 한다.

최고다!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이러한 고민에는 그나마 해답을 찾을 곳이 있다. 전자책과 학교도서관지원센터가 사서교사의 시름을 덜어준다. 먼저 시·도교육청별로 전자책을 구축하여 교육청 서버에 탑재하고, 학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니 거기서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다. 물론 구축 중인 전자책 안에 원하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는 2012년, 대구광역시립동부도서관에 학교도서관집중지원센터를 설치하였다. 이 센터에서는 필요한 동일도서 30권을 꾸러미로 구성하여 학교로 한 달간 단체대출해서 무료로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131개의 책꾸러미가 구성되어 있는데 원하는 책꾸러미가 없는 경우에는 책꾸러미 희망도서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희망도서 신청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단체대출한 책을 한 권이라도 분실하게 되면 책임소재가 애매해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 이 때문에 학교도서관 담당자는 쉽게 단체대출할 엄두를 못낼 수도 있다. 하지만 대구광역시립동부도서관 학교도서관집중지원센터의 이러한 시도는 참으로 혁신적이다.

그런데 이에 그치지 않고 아이디어를 더하여 생

각해 볼 수 있다. 사서교사들이 교육과정을 분석해서 교과수업 주제별 정보원의 목록을 구축하여 이를 꾸러미로 구성하는 것은 어떨까. 학교도서관집중지원센터의 기존 서비스가 같은 책으로 구성된 꾸러미를 대출해주었다면 이와는 달리 일반 도서 40권 이상을 꾸러미로 구성하는 것이다. 전문적인 바와 같이 도서관활용수업을 하다 보면 한 학년의 아이들 전체가 비슷한 주제자료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다. 36명 정도로 구성된 한 반에서 모둠을 여섯 개로 구성해 수행해야 하는 주제를 일부러 분산시킨다 하더라도 한 반에 6명의 학생은 동일한 주제의 자료를 찾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사서교사는 해당 도서관활용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예측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자료의 일부를 복사해 출처와 함께 제공할 수도 있다. 하지만 도서관활용수업을 할 때는 보통 하나의 학급만이 아니라 한 학년 전체가 같은 주제의 수업에 참여하게 된다. 보통 중간 규모 이상의 중·고등학교라면 한 학년이 다섯 개 반 이상, 200명 이상 재학 중이다. 이를 고려할 때 사서교사 혼자만의 노력으로 도서관활용수업 시 학생들의 자료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학교도서관 간 협력, 그리고 컨스펙터스

발전된 도서관활용수업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아마도 도서관활용수업 시 생겨나는 자료에 관한 필자의 고민과 문제점 역시 일반화될 것이다. 그러면 시·도 교육청에 설치된 하나의 학교도서관집중지원센터만으로는 학교도서관의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힘이 부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학교도서관의 자생력을 높여 학교도서관 간 상호대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물론 학교도서관별로 성문

화된 장서개발정책을 마련하고 특화된 장서를 구축하여야 한다. 학교도서관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각 관별로 교과를 분담하여 특화된 장서를 마련하고 해당 교과에 있어서는 망라적인 장서 수집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또한 컨스펙터를 구축하여 학교도서관의 교과별 장서구성 수준을 서로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도서관집중지원센터는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의 방법을 도입하면서 도서관활용수업 시 특정 장서 요구도가 과밀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너무나 이상적인 상황을 꿈꾸는 것일 수 있겠지만 공상이 허락되는 혼자만의 시간에 나는 그러한 상황을 그려보고는 한다.

장서, 관리 VS 활용

그래도 몇 가지 걱정과 고민이 있다. 도서관활용수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상호대처까지 하여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이라고 하자. 그런데 학교도서관의 장서를 지켜내야 하는 자산으로만 여겨 책을 잘 보관하고 있는지 감시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사서교사는 다시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 다른 관종의 도서관에 비해 학교도서관에는 생각보다 더 많은 이용자들이 순식간에 오간다. 일반적인 공공도서관이나 전문도서관, 대학도서관의 풍경을 상상하며 학교도서관 운영을 떠올리면 곤란하다. 도서관 입구에 분실방지를 위한 센서도 설치하지 않은 상황에 도서 훼손이나 분실은 너무나 빈번하다. 학교도서관이 보존기능 보다는 이용기능이 두드러지는 곳이라는 점을 다시금 고려하여 학교도서관과 관련한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 도서관을 경영함에 있어서 지켜내는 관리가 우선인지, 널리 이용시키는 활용이 우선인지에 대한 철학이 가장 필요한 곳이 학교도서관이다.

학교평가 속, 학교도서관 평가

또 다른 생각은 최근 실시되고 있는 학교평가에 관한 것이다. 학교평가에는 다행히 학교도서관에 대한 평가도 포함되어 있는데 애석하게도 2012년까지의 평가척도는 도서대출률 하나뿐이다. 도서관활용수업 시 관외대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다른 도서관에서 관련 자료를 빌려와 정보서비스를 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학교도서관 평가에서 오히려 낙제점을 받을 수 있다. 판타지, 만화, 연애소설류로 구성된 장서를 갖추고 이를 대출해준다면 해당 학교도서관의 도서대출률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좋은 학교도서관으로 평가 받을 수 있는 여지마저도 있는 것이다. 도서대출률이 학교도서관 평가의 전부인 현재 상황에서 관리자들도 도서대출률을 높이는 데에만 관심을 갖는다. 현재의 학교평가 제도는 학교도서관의 역할이 도서대여 창구라고 인식하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 같다.

학교도서관, 관중에 적합한 전자자료 보급

마지막 고민은 학교도서관 관중에 적합한 전자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상용화된 전자자료는 대학도서관에 적합한 형태이거나 어린이들에게 제공되는 전자책이 대부분이다. 더구나 학교도서관 예산을 고려한다면 이를 구독하는 것조차 여의치 않다. 전자자료 역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고려해 사서교사 뿐 아니라 학생 이용자와 교과교사가 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구성되고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교과, 심지어는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 단원별로 활용할 수 있는 전자자료가 구축되어 어린 학생들도 쉽게 전자자료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시·도교육청 역시 도서관활용수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이러한 전자자료

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하고 일선 학교에 그 활용을 독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학교도서관, 크리티컬 매스를 목전에 두고

분명 학교도서관의 외형은 몰라볼 정도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열악하다. 열악한 만큼이나 한편으로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블루오션이라 할 수도 있는 관중이 학교도서관이다. 정책적 해법과 일선 사서교사의 활약만으로 학교도서관 발전과 도서관활용수업의 활성화를 지켜보고 기다리기에선 학교도서관의 나아갈 길이 너무나 멀다. 그 길을 걷는 걸음걸이는 첫 걸음마를 하는 아이의 모습처럼 안타깝다. 지상블로그를 통해서나마 도서관 경영의 3요소라 할 수 있는 장서, 시설, 그리고 인력 문제에 대해 사서교사로서 느낀 부족한 필자의 생각과 고민을 격의 없이 차례로 풀어내 보고자 한다.

백지연은 『크리티컬 매스 : 1퍼센트 남겨두고 멈춘 그대에게』라는 책을 펴낸 바 있다. 크리티컬 매스(critical mass)란 임계질량이라는 물리학 용어이다. 즉 “핵분열 물질이 연쇄 반응을 할 수 있는 최소의 질량”이라는 뜻이다. 100℃까지 수온이 올라야 물이 끓기 시작하는데 어떤 이들은 물을 끓이기 위해 50℃까지, 혹자는 98, 99℃까지 가열을 하는 노력을 기울이다가도 아무래도 물은 끓지 않을 것 같다며 포기하기도 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빗대어 책의 제목을 지은 것이라고 한다. 이루고자 하는 바를 위해 잠재력을 키우는 노력을 끝까지 기울였을 때 비로소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학교도서관이 크리티컬 매스를 이뤄내는 날을 위해 이 글을 통해 학교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생각을 거침없이 공유하고 고민을 해결해 갈 수 있었으면 한다. (끝)